

빈곤층의 생활과 의식 생활세계 내 불평등의 지배와 저항*

박경숙**

이 연구는 빈곤층의 생활과 의식을 분석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2004년부터 2006년까지 부산, 울산, 경남 지역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실시된 설문 조사와 심층 인터뷰 자료를 활용하였다. 빈곤층의 생활 세계는 경제, 사회관계, 문화, 심리적 요인이 중첩되어 빈곤에서 빠져나오기 힘든 박탈의 그물망이 구성되고 있다. 소득/소비의 결핍이 교육, 노동, 사회관계의 결핍과 자아 박탈을 조장하고, 역으로 이들 기회요인들의 박탈이 소득/소비의 결핍을 촉발하면서 복합적 박탈의 그물망이 구조화되고 있다. 박탈 망이 구조화되고 있다는 것은 불평등에 전면적으로 포섭되고 있는 생활세계를 투영한다. 빈곤층의 의식과 태도에서는 한편으로 빈곤에서 벗어나려는 강한 의지를 관찰하게 된다. 이런 태도는 박탈 경험과 단절하여 중심에 동화하려는 기획에서 연출된다. 그러나 복합적 박탈상황은 중심에 동화하는 것을 제약하는 존재조건이기 때문에 동화의 기획은 실패로 끝나기 쉽고 이 과정에서 동화의 허구에 저항하는 인식이 일어나기도 한다. 이와 같은 빈곤층의 생활과 의식에 나타나는 다중성은 불평등의 지배에 대한 동화와 분리 경험이 교차되는 생활세계의 긴장을 드러낸다.

주제어: 불평등, 빈곤, 생활세계, 복합적 박탈

* 이 연구는 2003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 지원에 의해 연구되었다(KFR-2003-072-BM1003). 세심하고 유익한 논평을 해주신 익명의 세 분 선생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조교수. pks0505@snu.ac.kr

I. 머리말

불평등은 재화나 권위가 전유되거나 박탈당하는 상태라고 정의할 수 있다(Sen, 1981; Townsend, 1970). 그리고 노동시장의 분절, 젠더차별, 노동의 신분업구조, 그리고 복지국가의 취약성 등이 현재 불평등을 양산하는 주요한 기제들이라고 논의되고 있다. 그러나 이런 불평등기제가 어떻게 작동하는가에 대해서 충분히 알지 못한다. 많은 사람들이 1990년대 후반의 외환위기의 영향을 이야기하지만, 이것이 어떻게 일상의 노동 및 생활경험을 구속하였는가를 분명하게 인식하는 사람은 별로 많지 않다. 하청 노동자의 불안한 삶이 어떻게 불평등한 교환관계와 연관되는가를 알기도 쉽지 않다. 불평등을 경험한다고 해서 불평등을 인식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지배는 지배를 인식하기 어렵게 한다.

불평등의 경험과 이에 대한 인식 사이에는 다양한 적응과정이 매개하고 있기 때문이다. 객관적으로 분배구조가 불평등하더라도 그리고 남과 비교하여 자신이 받는 보상이 적더라도 불평등의 인식으로 귀결되지 않을 수 있다. 반대로 객관적 조건과는 관계없이 공정성을 문제시하는 심상이 지배적일 수 있다. 현 한국사회에서 관찰되듯이 공권력이나 지배층에 대한 불신이 큰 것은 객관적 분배구조가 공정하지 못한 이유도 있을 수 있지만 시민권과 평등의식이 확장된 데 비롯하였을 수 있다.

불평등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다양한 적응 전략을 구사할 수 있다. 한편으로 지위이동의 욕구를 강하게 가질 수 있다. 지위이동의 욕구가 강한 것은 이동의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기대하기 때문일 수 있다. 그렇지만 이동기회가 제한된다고 하더라도 성공주의 문화에 포섭되어 있다면 중심에 동화하려는 욕구가 강할 수 있다. 중심에 동화하려는 욕구는 박탈의 고통을 인내하고, 열심히 일하고, 가족결속을 강화하도록 스스로를 규율한다. 그러나 동화에의 실패도 일반적이다. 더욱이 이동의 기회가 거의 차단되어 있다면 동화욕구가 지불해야 하는 내적 스트레스가 크다. 이 과정에서 점차적으로 지위이동이 허구라는 인식을 굳혀갈 수 있으며 중심에서 분리된 하위문화를 선택할 수 있다.

이 연구는 중심에의 동화와 분리의 다양한 전략과 긴장이 빈곤층의 생활과 의식 심층에 작동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현 빈곤은 생활 세계의 전면적 계층화에서 재생산되고 있다. 여러 연구들에서 지적하고 있듯이 경제적 결핍

이 내포한 의미는 소득/소비 생활의 압박 뿐 아니라 복합적인 박탈 현상을 포함하고 있다. 가난하기 때문에 사회에서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것처럼 상품화된 사회에서 가난은 그 자체 주요한 사회적 박탈이면서 다른 삶의 기회들을 봉쇄한다. 가난은 또한 여러 불평등 상황들에 처하게 될 때 피하기 힘든 고충이기도 하다.

복합적인 박탈 상황에 대한 빈곤층의 대응과 인식은 다중적이다. 한편으로 곤경을 극복하려는 의지의 삶을 사는가 하면, 다른 한편에서는 위선과 남의 탓만 하는 삶도 관찰된다. 중심과 분리되는데 박탈감을 갖지만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대해 불신의 시선을 거두지 않는다. 또한 빈곤문화에도 중심문화에도 동화되지 못한 상태에서 부유하는 개인들이 많다. 불평등을 체험하지만 표현하지 못하기 때문에 운명론적 태도를 가지거나 심리 부적응의 징후들을 겪기도 한다. 그런데 중심에서의 시선은 이런 다중성을 부적응의 징후로서만 보았다. 빈곤 탈출 욕구가 좌절되고 빈곤 문화가 확대되는 것을 우려하였다. 그러나 중심에서의 시각은 부적응을 양산한 중심문화의 긴장을 보지 못한다. 이 연구는 주변의 긴장에서 중심의 지배와 긴장을 보려고 한다. 이런 시각의 전환을 통해 빈곤층의 경험과 인식의 다중성이 생활세계 속에 전면화되고 있는 불평등의 지배와 긴장을 상징하는 표지들임을 밝히고자 한다.

II. 이론적 논의

1. 불평등의 구조와 경험

불평등이나 양극화의 용어가 널리 회자되면서 그 의미 자체가 식상해지는 경향이 없지 않다. 차이와 차별을 동일하게 인식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또 과연 한국 사회가 불평등이 심한가를 원론적으로 묻는 논의도 등장한다. 선진사회는 물론 비슷한 경제수준에 있는 사회와 비교하여도 한국의 분배구조는 건강한 편이며 지나친 권리주장이 현실을 호도하고 있다는 진단도 접하게 된다. 다양한 이미지들이 부착되어 ‘불평등’ 용어는 애매하게 부유하고 있다.

불평등은 사실 연구자마다 다르게 정의될 정도로 복잡적이고 복잡하다. 무리하게 나누는 감이 없지 않으나, 한국 사회학에서 불평등에 대한 초기 논의들은 주로 경제적 지위관계에 주목하였다. 소득/소비 수준의 상대적 분포는 분배구조의 치

우침을 드러내는 지표로서 분석되었다. 한편 소득/소비 수준의 편향성이 왜 발생하는가에 대해 계급론, 인적자본론, 제도학과 경제론은 상이한 진단을 제시하였다. 계급론은 계급이 경제적 재화와 잉여가 생산되고 전유되는 방식을 결정하는 핵심적인 불평등기제라고 강조한다(신광영, 1991). 계급지위는 생산수단의 소유 관계나 생산과정을 관리하거나 지배할 수 있는 기술적 지위에 따라 결정된다고 주장한다. 어떤 생산수단도 소유하지 않은 노동자 계급은 불균등 교환관계에 종속되어 자신의 노동의 대가를 전유당한다고 피력한다. 이런 입장과는 구분되어 인적자본론이나 기능주의 계층론에서는 재화의 전유정도가 차등화되는 것은 개인이 수행하는 사회적 역할의 중요성과 그 인력의 희소성에 따른다고 본다. 재화의 차이는 능력과 기여의 차이에 대한 보상이며 적법한 기준에 의한 불평등은 공정하며 불가피하다고 파악한다. 이런 입장에서는 재화 배분과 절차의 공정성 요인들에 주목하였다(석현호, 1997; 홍두승·구해근, 1993). 한편 제도학과 경제학자들은 분배과정을 주요하게 규정하는 제도 요인들을 강조하였다. 내부노동시장이나 이중노동시장이 발생하게 되는 이유로 기업에 특수한 숙련 보호와 같은 경제적 요인이 강조되기도 하지만(Doeringer, 1971), 국내연구에서는 독점지대나 성, 연령, 부문 간의 차이, 노조의 영향 등이 분배의 협상력을 조율하였다고 강조하였다(송호근, 2002; 이효수, 1988; 이주호, 1992; 정이환·전병유, 2001).

계급론, 인적자본론, 제도학과는 시장이나 생산지위에서 재화가 불평등하게 분배되었다고 강조하므로 경제 불평등에 대한 논의들로 파악할 수 있다. 그런데 최근 불평등 구조 변화에 대한 논의들이 시사하듯이, 불평등 기제 및 현상은 경제, 사회, 문화적 차원의 복합성으로 나타나고 있다(방하남·남춘호·신광영·장지연·박경숙·이성균, 2004). 젠더불평등, 인종차별,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같이 불평등은 경제적 결핍만이 아니라 강제된 타자성, 물리적 폭력과 학대에 이르기까지 복합적인 박탈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불평등은 재화를 전유할 수 있는 권리의 불균등한 분배나 이를 결과하는 생산조직이나 시장 제도의 영향 뿐만 아니라, 차이가 차별로 해석되고 기회의 결핍이 정체성의 결핍으로 정당화되는 불평등의 문화, 심리적 메커니즘을 동반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까지 진행된 불평등 논의들에서는 불평등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경험되는가라는 질문에 진지한 설명을 뒤로한 채, 불평등 경험을 구조의 명이나 기능적 필요에서 귀결된 부수적 현상으로 간주하지 않았는가하는 의구심을 가진다. 필자는 불평등의 경험이 불평등 구조의 수동적인 반응이 아님에 주목한다. 계급의

식이나 욕구는 계급지위에서 기계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주체는 자신의 자원을 심분 동원할 뿐 아니라 계급지위를 몸과 정신, 욕구에 체화하도록 자신을 훈련하고 타인과 구별 짓는다(홍성민, 2000; 장미혜, 2002; 신명호, 2006). 불평등의 지배는 이렇게 주체가 계급 정체성을 만드는 과정을 통해 재생산된다. 이런 의미에서 불평등의 지배는 삶의 밖에서 행위, 의식, 욕구, 도덕 감정을 주조하는 경성의 구조가 아니라, 삶 안에서 경험되고, 원하고, 해석되면서 재생산되는 것이다.

기회들이 박탈된 상황에서도 불평등의 경험은 수동적이지 않다. 오히려 박탈 경험과 단절하면서 중심 가치를 통해 자신의 삶을 해석하고 변화시키려 한다. 이런 과정에서 지위 이동을 추구하는 욕구와 행위가 주도된다. 그러나 길리건(Gilligan, 1982)이 논하듯이 자신의 경험을 부정하는 인식과 태도를 연출할 때 건강하지 못한 심리 징후가 잠복하게 된다. 거짓과 불안한 감정, 정체성의 긴장 징후가 억압되었다가도 충동적으로 표출된다. 중심의 시선에서는 이런 징후가 인성 발달의 심각한 왜곡현상으로 이해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이런 징후는 자신의 경험을 부정하고 중심에 동화하려는 기획이 허구임을 밝히려는 저항으로 볼 수도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불평등의 지배는 두 방향의 주체화 과정을 통해 재생산된다고 볼 수 있다. 우선 배타적으로 전유한 지위 자원을 계급지위로 주체화함으로써 전유를 정당화한다. 동시에 박탈을 경험하는 쪽에서는 박탈 경험과 단절하여 중심에 동화하는 인식과 욕구를 내면화시킨다. 그리고 이러한 불평등의 주체화과정은 광범위한 인적 투자와 관리, 통제의 힘겨운 자기 싸움을 거쳐야 하므로 커다란 긴장을 내포한다. 더욱이 중심의 가치에 동화하려는 기획이 자신의 경험을 전면적으로 부정할 것을 강제할 때 그 강제에 동화하기보다 분리나 저항의 예후를 표출할 수 있다. 빈곤의 경험, 노년의 경험, 장애의 경험, 결핍가정의 경험에서 공통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정체성의 긴장은 불평등의 지배와 그에 대한 저항을 복합적으로 표시한다. 중심문화의 해석 틀에 맞추어 박탈 경험을 부정하려 하지만 중심에 동화하지 못한다. 이런 과정에서 동화, 분리, 저항의 다중적인 심리들이 혼돈스럽게 표출되는 것이다.

2. 빈곤층의 복합적 박탈경험과 인식의 다중성

필자는 빈곤의 경험을 복합적 박탈의 중요한 단면으로 파악한다. 복합적 박탈이란 불평등한 전유관계에 따라 삶의 기회들이 다층적으로 결핍되는 상태로 정의될 수 있다. 많은 연구들이 가난한 사람들은 일반 계층과 비교하여 교육수준, 직업지위, 건강상태, 가족 관계, 주거환경 등에서 결핍이 두드러진다고 지적하고 있다(구인회, 2002; 홍경준, 2004; 노대명·이태진·강병구·강석훈·홍경준·이인재·송민아·김선미, 2003). 또한 1990년대 후반 이래 한국 사회의 변화를 직조하고 있는 계층화의 힘은 빈곤과 불평등의 연관에 주목하는 문제의식과 연구들을 크게 일으켰다. 특히 유럽과 미국 사회에서 소개된 신빈곤과 사회적 배제논의들을 한국적 맥락에 적용하여 빈곤의 성격을 사회 변동의 구조적 영향과 연관하여 설명하려는 시도들이 활발하게 전개되어 왔다(박병현·최선미, 2001; 심창학, 2001; 강신욱·김안나·박능후·김은희·유진영, 2005; 노대명 외, 2003; 한국사회도시연구소, 2006). 그렇지만 이런 빈곤에 대한 새로운 논의들도 빈곤의 변화된 특성을 분명히 밝히는데 그다지 성공하지 못하였으며, 빈곤을 바라보는 기존 관점들의 한계를 충분히 극복하지도 못하였다. 다양한 취약계층의 삶을 설명하기 위해 신빈곤이나 사회적 배제의 개념이 이용되고 있지만, 이들 개념으로 정확히 무엇을 새롭게 규명하고 있는지 명확하지 않다. 노동빈곤, 주거 빈민, 장애인, 이주노동자, 여성, 고령자, 탈북자 등 각각의 삶에서 별로 만나거나 공유할 인연이 없을 것 같은 집단들을 함께 이야기하고 있지만 무엇이 연관되는지 분명하게 전달되지 못하고 있다(한국사회도시연구소, 2006).

신빈곤논의나 사회적 배제론의 모호함은 그 개념이 명확히 규정되지 않았거나, 주된 가정들이 현상과 배치되기 때문만은 아니다. 새로운 빈곤 논의들이 주목을 받았던 데에는 지금까지 이분법적으로 다루어졌던 빈곤의 행위와 구조 요인 사이나 기회조건과 심리적 차원 사이의 상대적 중요성을 둘러싼 오랜 논쟁의 미궁을 뚫고 나올 수 있는 새로운 시각을 던져줄 수 있다는 기대가 크게 작용하였다. 그리고 새로운 빈곤논의들은 빈곤을 단순히 경제적 차원이 아닌 복합적 배제 과정의 결과로 파악하는 점에서 빈곤에 대한 기존의 설명과는 차별성을 가진다고 강조하였다(조명래, 2006). 빈곤은 노동빈곤, 상대적 빈곤, 복합적 박탈(결핍), 그리고 절망이 중층화된 복합적인 결핍이며(장세훈, 2005), 시민권의 박탈, 기회의 박탈, 역량의 결여 등 정상적인 사회참여 기회에서의 결핍과 능력의 박탈의 원인이자 결

과로 정의하였다(강신욱 외, 2005).

그런데 새로운 빈곤 논의에서도 빈곤을 바라보는 시선은 중심에서의 관점이 지배하고 있다. 배제 현상이 강조되면서 역설적으로 빈곤의 경험을 부정적으로만 진단하는 경향이 강화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새로운 빈곤 논의들도 중심의 논리를 정상화하고 주변을 배제하는 메커니즘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사회적 배제나 신빈곤 논의가 처음 제기되었던 맥락에는 다양한 타자의 존재를 인정하고 자기중심적인 시각이 갖는 폭력과 억압을 비판하려는 인식이 포함되었을 것 같은데, 한국 토양에서는 이런 문제 인식이 탈색되고 계층화의 힘이 강화되는 중심으로의 동화가 일방적으로 강조되고 있다는 우려를 갖게 한다.

빈곤을 바라보는 기존 시각과의 차별성은 빈곤층의 심리에 대한 특정한 고정관념이 지속되고 있는 해석구조를 비판하기 위해서도 강조할 필요가 있다. 여러 사회에서 빈곤 정책이 구체 가치가 충분히 있는 빈곤과 그렇지 못한 빈곤을 구분하는데 관심을 가졌듯이(Katz, ed., 1993; Lewis, 1961; Iceland, 2003), 국내의 빈곤 정책도 빈곤 탈출에 희망이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을 구분하려는 입장이 강하다. 더욱이 빈곤 성격의 변화와 관련하여 과거 모두가 어렵게 살고 사회 이동의 기회가 컸던 시절 빈곤 의식은 희망적이었지만 최근에는 빈곤을 지속시키는 독특한 하위문화가 만들어지고 있다고 우려되고 있다(장세훈, 2005).

이렇게 빈곤 의식은 고통을 극복하려는 의지와 환경에 안주하거나 남의 탓만 하는 심리를 교차시켜 진단한다. 그리고 전자는 바람직하고 후자는 병리적 징후로 간주한다. 그러나 이는 중심의 논리가 여과 없이 투사된 진단이다. 신명호(2006)가 예리하게 지적하듯이, 새로운 빈곤에 대한 대부분의 논의들은 동화에 실패하게 되는 절망을 우려하고 있지만 이런 절망감의 원천이 되고 있는 일류, 서열, 성공, 물질주의의 폭력적 지배에 대해서는 비판력을 상실하고 있다. 이런 중에 빈곤에 대한 동정과 분리의 시선이 지속되는 것이다.

중심위주의 편향된 시선에서 하위문화의 대부분의 가치가 인정되지 않고 빈곤 경험 전반을 개인 의지나 도덕의 결함으로 재단하는 것이 배제의 중요한 메커니즘이었는데 주의할 필요가 있다. 또한 빈곤층의 다중적 인식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빈곤의식의 다중성은 중심에 동화하려는 기획과 이것이 가하는 억압과 그에 대한 저항이 복합적으로 표출된 현상일 수 있다. 복합적인 박탈경험을 부정하고 중심에 동화하려는 기획은 경험을 왜곡한다. 박탈경험의 부정 은 자신과 동변상련에 있는 이웃들에 대한 부정적 시선으로 이어진다. 빈곤의식

에서 살필 수 있는 건강하지 못한 예후들은 중심문화에 동화하지 못한 결과로 일어날 수도 있지만 또한 박탈 경험을 부정하고 동화를 추구한 기획의 허구에 뿌리를 두고 있을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빈곤의식의 다중성은 불평등의 지배와 중심문화의 폭력성에 대한 저항을 동시에 표시하는 것이다.

이 연구는 빈곤층의 생활과 의식에서 이러한 불평등의 지배와 저항을 읽어내고자 한다. 생활세계가 불평등에 포섭되고 있는 현재, 빈곤의 경험은 한편으로 복합적 박탈상황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 복합적 박탈이란 자원을 획득할 수 있는 기회의 차별화 뿐 아니라 객관적 분리가 내면적인 자질의 차등으로 정당화되는 해석 과정을 포함한다. 불평등의 지배는 박탈을 부정하고 중심에 동화하려는 기획을 강제한다. 그래서 자신의 박탈 경험에서 분리하려고 하지만, 객관적 위치는 동화의 허구를 깨닫게 하며 저항하게 하기도 한다. 빈곤경험에 대한 다중적 의식은 이와 같은 불평등의 지배에 배태된 동화와 분리의 긴장을 경험하는 심리과정을 표시하고 있는 것이다.

III. 부산, 울산, 경남 빈곤층의 생활과 의식 조사

빈곤층의 생활과 의식을 분석하기 위해 필자와 동료 연구진은 2004년부터 2006년까지 부산, 울산, 경남 지역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인터뷰 조사를 하였다.¹⁾ 전국적 표본이 아니므로 조사결과에 표집 지역 고유의 효과가 혼재되어 있을 수 있다. 또한 빈곤층 내부의 다양성을 표본에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제약도 있다. 이런 표집 한계를 전제하지만 빈곤경험의 심층구조를 조명하기 위하여 가족, 건강, 노동, 경제생활, 사회관계, 사회정치의식, 주거환경, 복지제도 접근성 등에 대한 매우 세밀한 조사로 설계하였다.

표본은 도시와 농어촌의 산업구조와 생활방식의 차이를 고려하여 도시지역의 빈곤밀집 지역과 농어촌의 최소 행정 단위(동, 읍, 리)를 결정하였다. 빈곤층을

1) 이 연구에 참여한 연구자는 필자를 포함하여 장세훈, 김진수, 김수영, 박형준, 차성수, 한상진, 김학주, 조영훈, 김남줄, 손태홍, 박병철, 이상문, 최희경, 나금실, 허미영, 허민영, 이진석, 조일윤, 김상현, 김영혜 등 교수, 박사급 연구원으로 구성되었다. 연구를 위해 수집한 조사 자료는 한국사회과학자료원(www.kosssda.or.kr)에 보관되어 있으므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정의하기가 어려운 만큼 모집틀을 구하는데 제약이 크다. 이 점을 고려하여 해당 지역의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명단을 모집틀로 하되 현장 정보자의 도움을 통해 차상위계층이나 일반 저소득층도 표본에 포함시켰다. 1차년도 조사를 실시하였을 때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비수급자의 표본 수는 8:3으로 총 표본은 1,100명으로 정하였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에는 근로무능력자의 비중이 크지만, 다양한 빈곤양상을 파악하기 위하여 근로능력자에 좀 더 많은 표본가중치를 두어서 표본 크기를 정하였다. 1차 조사에서 응답을 완료한 사례는 969이고, 2차와 3차 조사에서는 각각 783명과 617명이 반복 조사되었다. 3차 년도에 걸쳐 반복 조사를 설계한 것은 빈곤탈출의 동학을 살펴보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3년 기간 동안 빈곤층의 생활의 유의한 변화를 관찰하지 못하였다. 비록 동학 연구는 제약을 가졌지만, 3년간 반복된 조사는 변수 측정의 안정성(신뢰도)을 평가하는 가치를 가진다.

조사대상자의 일반특성은 <표 1>에서와 같이 요약된다. 응답자의 가구주와의 관계에서 가구주 본인이 86.3%로 가장 많았고, 가구주의 배우자가 8.9%, 가구주의 자녀가 3.1%, 부모가 0.8%, 그리고 기타가 0.8%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자의 성별 분포는 남성이 39.1%, 여성이 61.0%로 여성의 비율이 남성보다 높게 나타난다. 조사대상자의 연령은 39세 이하가 15.7%, 40에서 49세 이하가 29.6%, 50에서 59세 이하가 20.7%, 60세 이상이 33.9%로 분포되고 있다.

교육수준은 초등학교 이하가 51.2%로 조사대상자의 저학력 특성이 뚜렷하다. 중학교 중퇴 및 졸업이 19.4%, 고등학교 중퇴 및 졸업이 23.9%, 그리고 2년제 대학 이상이 5.5%로 분포되고 있다. 조사대상자의 혼인상태는 미혼 9.1%, 유배우 33.8%, 이혼 및 별거 25.9%, 사별 31.3%로 분포된다.

조사대상자 가운데 일을 하지 않고 있는 비율이 과반수(58.1%)가 되고 있다. 취업상태인 조사대상자 중에서는 일거리가 불안정한 임시, 일용직 근로자(19.2%)와 공공 근로(8.0%), 자영(7.2%)의 비율이 높다. 상용직 근로자의 비율은 7.1%에 그친다. 조사대상자 중 중증장애를 가지고 있는 비율이 24.3%로 나타난다. 조사 대상자의 82.3%가 기초생활지원 경험을 가지고 있다고 응답하고 있다.

조사대상자를 포함하여 함께 살고 있는 가구원은 평균 2.53명이다. 조사대상자의 4분의 1이상이 혼자 살고 과반수가 2인 이하의 가구이듯이 가구의 규모는 작은 편에 속한다. 조사대상자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2004년 기준 63.6만원으로 조사되었으며 표본가구 중 절대빈곤 상태에 있는 가구의 비중이 77.0%가 된다.²⁾ 가

〈표 1〉 조사응답자의 특성

주요특성	범 주	백분율	빈 도
가구주와의 관계	가구주 본인	86.3	833
	배우자	8.9	86
	자 녀	3.1	30
	부 모	0.8	8
	기 타	0.8	8
	계	100.0	965
성 별	남	39.1	378
	여	61.0	590
	계	100.0	968
연령 (평균 53.3 표준편차 14.4)	39세이하	15.7	152
	40-49세	29.6	286
	50-59세	20.7	201
	60세이상	33.9	329
	계	100.0	968
교육수준	초등학교이하	51.2	494
	중학교	19.4	187
	고등학교	23.9	230
	전문대이상	5.5	53
	계	100.0	964
혼인상태	미 혼	9.1	88
	유배우	33.8	326
	이혼, 별거	25.9	250
	사 별	31.3	302
	계	100.0	966
주된활동	상용직임금근로자	7.1	68
	임시,일용직	19.2	184
	자활공공근로	8.0	76
	고용주,자영업	7.2	72
	비취업	58.1	556
	계	100.0	953
장애여부	장 애	24.3	233
	비장애	75.7	726
	계	100.0	959
기초생활지원	현재받음	71.4	674 (기간: 평균 4.9년)
	과거받음	10.9	103 (기간: 평균 4.5년)
	받지않음	17.7	167
	계	100.0	944
가구원수	평 균	2.53명	968
가구 월평균 소득	평 균	63.6만원	942
절대빈곤율 %	평 균	77	942
거주지역	광역시	54.5	528
	중소도시	34.6	335
	농어촌	10.9	106
	계	100.0	969

2) 절대빈곤율은 해당년도 정부가 제출한 가구원수별 최저생계비 기준에 기초해 측정하였다.

구 내 취업자가 있는 경우에도 절대빈곤 상태의 가구가 68.6%가 되어 단순히 불안정한 취업만으로 빈곤을 탈출하기 어려움을 시사한다. 조사대상자의 거주지역은 광역시 54.5%, 중소도시 34.6%, 농어촌이 10.9%로 분포된다.

설문지 조사와 더불어 2회에 걸쳐 50여명의 심층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인터뷰는 성장과정, 교육과 학교생활, 노동과 직업, 결혼과 가족, 사회관계 등에 대한 구술로 진행되었다. 또한 부산과 경남의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과 사회복지 관련 단체의 실무담당자들을 대상으로 빈곤층의 생활과 인식 및 빈곤정책의 효과에 대한 생각을 물어보았다. 이 인터뷰 자료를 이용하여 빈곤층의 의식을 해석하고자 한다. 가난의 원인에 대한 생각, 불평등에 대한 인식, 기타 빈곤층의 의식에서 포착된 의미들을 중심문화와의 관계에서 해석해보고자 한다.

IV. 복합적 박탈의 측정과 수준

먼저 빈곤층 생활전반의 박탈 상황을 분석하였다. 박탈의 차원들은 삶의 질, 사회적 배제, 인간발달 등의 지표들을 참조하여 경제생활, 건강, 교육, 노동, 가족, 복지, 사회관계에서의 박탈과 자아 정체성의 긴장을 포괄하는 척도로 구성하였다.³⁾ 통계청, 보건사회연구원에서 생산한 사회지표들은 제도, 관계, 의식에 대한 총량적 지표들로서 가치가 있지만 생활의 세밀한 부분을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다. 박탈의 제도, 문화, 관계적 측면들을 심층적으로 측정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런 부분은 총량적인 조사나 행정자료로서 잡히기 어렵다. 본 연구에서 구성한 박탈의 하위 차원들은 객관적 조건과 더불어 관계, 심리 문화적 부분을 종합하여 구성한 지표들이다.

박탈 상황은 삶의 기회의 '절대적'이거나 '상대적' 결핍 상황으로 접근하였다. 절대적 결핍과 상대적 결핍의 구분은 측정 가능성을 고려한 선택이었다. 즉 비교 집단에 대비한 측정이 가능할 때는 상대적 결핍으로 접근하였다. 예를 들어 어떤 가

3) 사회지표 개발은 대내외적으로 광범위하게 이루어진 상태이다. UN의 사회인구통계체계, OECD의 사회적 지표체계, UNDP의 인간개발지수(HDI), UNRISD의 생활수준지표, EU의 사회적배제 지표나 삶의 질 지표 등이 개발되었고, 국내에서도 통계청이 사회지표를 생산하고 보건사회연구원 등에서도 취약계층의 삶의 질과 사회적 배제에 대한 경험적 지표를 개발하였다(정경희 외, 2002; 이가옥 외, 2000; 강신욱 외, 2005).

구의 소득수준의 결핍 정도는 전체 도시 가구의 평균 가구소득과 비교한 상대비로 측정하였다. 교육박탈은 해당 연령의 평균교육연수에 대한 응답자의 교육수준의 상대적 비로 측정하였다. 한편 상대적 비교가 여의치 않은 경우에는 최상의 상태를 가정한 뒤 그로부터의 거리로 측정하였다. 예를 들어 건강상태는 평균 집단 비교가 어려워 최상의 건강상태와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를 비교하여 건강상태의 박탈 정도를 측정하였다.

많은 지수 항목들을 사용할 때 또한 고려해야하는 것이 각 점수들의 차이를 비교하는 기준을 정하는 일이다. 여러 점수들 사이의 체계적인 비교를 위해서는 측정 수준을 표준화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는 모든 지수를 0과 1사이의 범위를 갖도록 표준화하는 방법을 이용하였다(이현송, 2000). 1은 완전박탈을 0은 삶의 기회가 완전 충족된 상태로 해석된다.

세 차례 조사를 반복하면서 시계열적으로 안정적인 문항도 있고 변이가 큰 문항도 있었다. 재조사에서 누락된 사례들은 응답을 완강히 거부하였거나, 사망하였거나, 일거리를 찾느라고 집을 비운 사례가 많았다. 또 부분적으로는 설문방식이 변화되어 응답분포가 다르게 나타난 경우도 있었다. 이런 이유로 분포의 변화를 행위 변화로 파악하는데 주의가 필요하여 반복 측정된 박탈점수는 그 평균값을 이용하였다. 각 하위 영역별로 박탈의 지수를 만든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경제 박탈

경제박탈은 가구소득수준과 주관적으로 인지하는 경제적 압박, 소득개선 전망 등에 대한 평가를 종합하여 측정하였다. 소득수준의 상대적 비는 2003~2005년 도시가계의 가구원수별 평균가구소득에 비교하여 측정하였다. 그리고 각 년도 최저생계비 기준에 따라 절대빈곤율을 측정하였다. 객관적 지표와 주관적 지표사이 가중치를 어떻게 줄 것인가를 결정하기 위하여 요인분석을 해본 결과, 객관적 결핍만큼 주관적 결핍의 정도가 크지는 않았다. 이는 환경의 구축을 완충하는 적응 요인들이 매개함을 반영한다. 결국 만들어진 경제적 박탈 지수는 소득비와 절대적 빈곤율의 객관적 지표와 경제적 압박감과 미래 소득에 대한 기대 변수의 요인 점수 값으로 구하였고, 요인 점수도 다시 0점에서 1점 범위로 표준화하였다. 경제적 박탈 점수의 평균치는 1점을 최대로 볼 때, 1~3차 년도에 각각 0.72, 0.69, 0.65로 측정된다.

2. 건강 박탈

건강 박탈은 주관적으로 인지하는 건강 수준과 이환율의 평균값으로 측정하였다. 주관적으로 평가한 건강상태는 '나는 건강문제 때문에 정기적으로 병원에 다닌 적이 많다.' '내 건강이 나빠질 것 같은 예감이 든다.' '나는 매우 건강하다' 항목의 평균값으로 측정하였다. 그리고 36개 질환에 대해 이환율과 질환 수를 측정하였는데, 이환율이 10% 이상인 질환은 관절, 요통, 디스크, 소화, 당뇨, 고혈압, 충치 등으로 나타났으며, 하나 이상의 질환을 가지고 있는 응답자의 비율이 80% 가까이 되었다. 이환율은 36개 만성질환 중 하나라도 질병을 가지고 있으면 1로, 그렇지 않으면 0으로 처리하여 계산하였다. 건강에 대한 주관적 평가와 이환율의 척도 효과는 동등한 것으로 추정하였다. 전체 건강 박탈 정도는 평균 0.69로 매우 높게 나타난다. 인지된 건강 박탈은 평균 0.58, 이환율은 평균 0.79로 측정되었다.

3. 교육 박탈

2005년도 인구총조사의 연령별 평균 교육수준과 비교하여 측정하였다. 2005년도 센서스에 조사된 교육수준을 교육연수로 전환하기 위하여 졸업상태는 정규 최대이수년도(초등학교, 6년, 중학교와 고등학교 3년, 대학 3년, 대학교 4년, 대학원석사 2년, 박사 4년), 그 과정 기간이면 최대 이수 연수의 반 값을 할당하였다. 이렇게 구한 값에 응답자의 교육수준(이도 마찬가지로 방법으로 연수로 전환함)을 나누어 교육 수준비를 계산하였다. 응답자의 교육연수가 평균보다 높으면 1의 값을 대입하였다. 분석 결과 응답자의 평균 교육수준은 동일 연령대의 전체 인구의 0.65 수준이고 박탈로 전환하면 0.35로 측정되었다.

4. 노동의 박탈

측정에 활용한 변수는 취업여부, 취업시 일자리 만족도와 사회보험가입여부이다. 우선 일을 하지 않으면 노동에서 박탈되었다고 가정하였다. 물론 스스로 원해서 일을 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응답자의 대다수는 불가피하게 일을 못하는 것이라고 피력하였다. 다음으로 일을 하더라도 어떤 일인가를 고려하였다. 이에 소

득, 고용안정성, 노동시간, 개인의 발전가능성, 인간관계 등 일자리에 대한 평가와 사회보험제도에의 접근성을 측정하였다. 노동의 박탈점수를 계산한 절차를 정리해보면, 일을 하지 않으면 노동 박탈을 무조건 1로 처리하였고 일을 한다면 노동 박탈지수를 $1 - (\text{일자리 만족도} + \text{보험가입률}) / 2$ 로 측정하였다. 측정 결과 노동박탈 점수는 0.86점으로 매우 높다. 노동의 박탈 정도가 큰 것은 대부분 취업을 하지 않고 일을 하더라도 노동환경이 열악한 때문이다. 응답자의 46%만이 취업활동을 하고 있고 일자리 만족도에서는 51%가 불만을 표시하였다. 사회보험 수급율도 매우 낮다.

5. 가족관계의 박탈

측정이 가장 복잡했던 부분에 해당되었다. 자녀관계, 부모와의 관계, 부부관계의 질과 가족 관계 전반의 스트레스와 화목 정도를 측정하여 그 평균값으로 가족관계의 박탈 정도를 측정하였다. 전체가족관계의 박탈 점수는 평균 0.37이다.

자녀관계는 해당자녀가 존재할 때 비취학자녀, 취학자녀, 성인자녀 관계의 평균값으로 측정하였다. 비취학자녀관계는 육아스트레스(육아요령, 양육비, 신체적 피곤, 조력자 부재에서의 스트레스)를 측정하였다. 취학자녀의 관계는 취학자녀의 성적, 학업중단, 자녀로 인한 속상한 일, 자녀의 가출 경험 등을 측정하였다. 18세 이상 성인자녀와의 관계는 자녀로 인한 스트레스, 자녀관계 친밀도, 경제/일상생활 도움의 평균값으로 측정하였다. 도움 관계의 질은 호혜, 받음, 줌, 비교류 순으로 차등화 된다고 가정하였다. 분석결과 자녀와의 관계에서는 박탈점수는 평균 0.30으로 관계의 소원함이 별로 크지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

부모관계는 외형적 긴밀성(동거와 연락정도), 도움관계, 만족도의 평균값으로 측정하였다. 동거율은 낮은 편이지만 왕래는 빈번한 편이다. 경제적 교류와 일상생활지원에서 박탈점수가 높게 측정되었고 친밀함에서는 박탈점수가 낮게 측정되었다. 종합해보면 부모와의 관계에서 박탈정도는 평균 0.48로 측정되었다.

부부관계는 배우자로 인한 스트레스, 소원함, 경제적 비도움, 정보 비도움 등의 문항을 통해 측정하였다. 전체적으로 부부관계에서의 박탈점수는 평균 0.42로 측정되었다.

이 밖에 지난 1년간 가족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측정하였다. 가장 많이 지적한 가족스트레스 원인은 자녀, 건강, 가정 안에서 자신의 부담, 빚 독촉, 실업 순으

로 나타났다. 가족스트레스는 평균 0.33로 측정되었다.

6. 복지 박탈

복지제도에서의 박탈은 의료 및 소득 보조 여부, 자활사업에의 참여여부, 각종 서비스 이용 여부를 중심으로 측정하였다. 복지 박탈 점수는 평균 0.59이다. 정부로부터 의료, 소득보조를 받고 있는가는 의료 및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받는 여부로 측정하였다. 지원을 받지 못하는 비율이 평균 0.37이다.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정도는 낮았으며 참여내용은 지역봉사, 동사무소, 자활후견기관에서 실시하는 단순 업무가 주를 이루었다. 자활에 참여한다고 응답한 사람 중에는 참여의 이유가 창업이나 취업을 위해서라고 응답한 비율은 매우 낮았고 대부분 생계비 지급 조건으로서 참여하였다고 밝혔다. 자활기회에서의 박탈은 자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지, 참여한다면 자활훈련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지, 그리고 참여 이유가 창업이나 취업인지에 대한 응답의 평균값으로 측정하였다. 자활훈련에서의 박탈 정도는 평균 0.89이다. 공공 서비스 접근에서의 박탈은 서비스의 필요, 이용, 만족도 문항을 종합하여 측정하였다. 즉 필요하다고 응답한 서비스를 이용하였는지, 이용하였다면 만족하는지를 중심으로 측정하였다. 서비스에서 박탈 정도는 평균 0.52로 측정되었다.

7. 자아 소외

주관적 복리, 자기통제의식, 불평등에 대한 공정성 인식을 자아인식에서의 박탈 정도로 측정하였다. 주관적 복리가 낮을수록, 자기통제감이 낮을수록, 불평등에 대해 공정성 인식이 낮을수록 자아 소외 정도가 크다고 가정하였다. 주관적 복리는 우울감, 불안감, 적개심 척도의 평균값으로 측정하였다. 이상문(2005)이 선정한 정신 건강 문항들의 내적일관도는 매우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여기서는 하위 척도들의 총합으로서 심리적 복리상태를 측정하였다. 주관적 복리에서 박탈 점수는 평균 0.45로 측정되었다.

자아통제감은 ‘나 혼자 힘으로 해결하기 힘든 일들이 많다,’ ‘나의 삶은 가끔 무언가에 떠밀려 가는 듯한 느낌이 든다,’ ‘나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스스로 다스리기가 힘들다,’ ‘나의 인생에서 내가 결정할 수 있는 일은 없다’의 문항의 평균값으

로 측정하였다. 자아통제에서 박탈점수는 평균 0.58로 측정되었다.

사회불평등 의식은 ‘열심히 노력해도 가난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 같다’, ‘우리나라는 소득격차가 너무 크다’ 문항과 사회불평등의 공정성에 대한 문항과, 성공에 중요하다고 평가한 조건들의 문항을 통해 측정하였다. 응답자 대부분은 열심히 노력해도 가난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 같다고 생각하였다. 지위가 높은 사람은 능력이 뛰어나서라고 생각하면서도 소득격차가 너무 심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또한 사회적 성취에 있어 부모배경과 자신의 학력, 노력을 모두 강조하는 태도를 보였다. 이들 지수의 평균 점수는 0.59이다.

정치에서의 박탈의식은 정치관심, 신뢰, 참여, 효능 문항을 중심으로 측정하였다(박병철, 2006). 분석결과 정치적 소외 점수는 평균 0.54로 측정되었다. 하위 차원을 살펴보면 정치에 대한 관심과 신뢰와 효능감은 낮는데 참여도는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심층면접에서도 정치에 무관심한 태도가 두드러졌다. 자신의 삶과 관계없으며 삶이 어려우니 관심이 없다는 냉소적 태도가 강하다. 또한 경제적 어려움이 정치를 잘못된 때문이라고 설명하기도 하였다. 상대적으로 정치 참여가 높은 이유는 높은 투표율 때문이며 다른 형태의 정치 참여는 제한된다.

8. 사회적 관계의 박탈

사회관계에서의 박탈은, 가족, 친척, 이웃, 동료, 복지단체와의 외형적 긴밀함, 정서적 친밀함, 실용적 지원 관계에서의 결핍 정도로 측정하였다. 대부분 부모와 동료와의 관계는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부모는 사별로 인하여, 직장 동료는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관계가 부재하였다. 분석결과 관계의 박탈정도가 크게 측정된다. 정서적 친밀함에서 0.65, 실용적 지원에서 0.78로 관계 박탈점수가 높게 측정되었다.

9. 근린환경과 이웃관계의 박탈

근린환경의 편리성과 이웃과의 관계를 측정하였다. 근린환경의 편리성은 거주환경의 낡음, 서비스 이용의 불편함, 교통 불편, 위험, 소음, 전반적 거주지 만족도의 평균값으로 측정하였다. 근린환경의 불편정도는 평균 0.45로 측정되었다. 주민들과의 관계는 다른 지역주민들과의 분리의식, 동네에 대한 애착, 주변사람

〈표 2〉 삶의 하위 차원별 박탈 수준

박탈의 측정		박탈의 수준(1, 완전박탈)				
박탈의 차원	하위 차원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평 균	평 균*
경 제	계	0.72	0.69	0.65	0.70	0.73
	평균가구소득대비	0.72	0.72	0.69	0.71	0.73
	소득	0.74	0.69	0.67	0.71	0.77
	절대빈곤	0.65	0.58	0.58	0.62	0.63
	경제적압박		0.49	0.50	0.49	0.52
	미래소득전망					
건 강	계		0.69		0.69	0.73
	인 지	0.63	0.58	0.61	0.58	0.63
	이 환		0.79		0.79	0.83
교 육	평균교육수준대비	0.35			0.35	0.42
	교육수준					
노 동	계		0.86		0.86	0.92
	취 업	0.55	0.54	0.60	0.54	0.74
	노동의 질		0.51	0.54	0.51	0.50
	1-사회보험가입율		0.93		0.93	0.96
가 족	계		0.37		0.37	0.38
	자녀관계		0.30		0.30	0.32
	부모관계		0.48		0.48	0.50
	부부관계		0.42		0.42	0.44
	가족 갈등		0.33		0.33	0.35
복 지	계	0.60	0.58	0.60	0.59	0.60
	의료, 소득보장	0.33	0.40	0.40	0.37	0.35
	자 활	0.91	0.85	0.91	0.89	0.93
	서비스	0.57	0.48	0.49	0.52	0.53
지역공동체	계		0.45		0.45	0.43
	편리성		0.45		0.45	0.44
	연대/참여		0.45		0.45	0.42
사회적 관계	계	0.69	0.72	0.75	0.71	0.74
	정 서	0.59	0.69	0.73	0.65	0.69
	자 원	0.78	0.76	0.77	0.78	0.80
자아통합	계	0.57	0.48	0.48	0.52	0.54
	주관적 안녕	0.50	0.42	0.39	0.45	0.46
	자아통제력	0.63	0.54	0.51	0.58	0.61
	불평등의식	0.59			0.59	0.59
	정치소외	0.54		0.53	0.54	0.54

* 기초생보자의 구성비의 가중치를 적용하였을 때의 분포를 나타낸다. 기초생보자 중 고령, 장애 등으로 무능력자의 구성비가 크지만 분석을 위하여 표본에 선택되는 비율을 작게 정했다. 마지막 칼럼에 제시된 평균치는 기초생보자의 구성비에 근접하도록 가중치를 적용하여 계산한 값이다. 앞의 수치와 비교하여 경제, 건강, 교육, 노동에서 박탈정도가 더 크다.

들 사이에 도움을 주고받는 여부, 지역모임에 참여하는 정도를 합하여 측정하였다. 근린환경/이웃관계에서 박탈점수는 0.45로 측정되었다.

이렇게 생활 전반에서 구한 박탈점수들을 정리한 것이 <표 2>에서와 같다. 1~3차년도의 평균박탈 점수를 보면, 경제에서 0.70, 건강은 0.69, 교육은 0.35, 노동은 0.86, 가족관계에서는 0.37, 복지에서는 0.59, 근린환경/이웃에서는 0.45, 사회적 관계에서는 0.71, 자아통합에서는 0.52로 분포되고 있다. 각 차원에서 완전박탈 수준은 1이고, 0은 완전 충족상태로 해석할 수 있으므로, 여러 차원들 사이 박탈 수준을 직접적으로 비교해도 무리가 없다고 본다.

가장 박탈수준이 큰 부분은 노동이다. 이것은 조사대상자의 상당수가 취업 활동을 하지 않은 이유도 크지만, 일을 하더라도 일의 질이 낮게 평가되기 때문이다. 건강의 박탈수준도 뚜렷하다. 응답자 열 명 중 일곱 명이 하나 이상의 질환을 가지고 있으며, 인지된 건강상태도 낮다. 경제생활의 박탈정도도 높은 수준이다. 그런데 경제생활의 하위 부분을 보면 객관적 상태에 비해 주관적으로 인지한 박탈정도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다. 교육수준의 박탈정도는 0.35로서 다른 점수들에 비해 낮지만, 이것이 평균 교육수준의 65%라고 해석한다면, 그 박탈정도의 심각함을 알 수 있다.

노동, 건강, 경제, 교육 부분에서 보이는 박탈정도는 기존의 연구들과도 부합되는 결과이다(강신욱 외, 2005; 노대명 외, 2003). 그런데 기존 연구에서 강조한 것과는 다르게 실제 박탈정도가 그렇게 심각하지 않게 나타나는 부분이 보이는데 가족 관계가 그 예에 속한다. 특히 자녀관계는 상대적으로 안정되게 보인다. 부모와의 관계와 부부관계의 박탈점수는 다소 높은 편에 속한다. 복지 부분에서는 의료와 소득 보조의 효과는 큰 편이지만, 자활의 효과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사회적 관계의 박탈 상황도 뚜렷하다. 정서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도움을 구할 수 있는 관계가 매우 취약하다. 마지막으로 자아의식 부분을 보면 자아 통제력의 상실과 불평등의식에서의 점수가 다소 높게 나타나고 있다.

V. 복합적 박탈과 빈곤 의식의 다중성

1. 복합적 박탈의 그물망

빈곤층의 생활이 여러 측면에서 박탈 정도가 심하다는 것은, 박탈 요인들 사이 유의한 관계가 있음을 시사한다. <그림 1>과 <표 3>은 빈곤/박탈 요인들 사이의 상호 관계를 분석한 결과를 나타낸다. 상호 효과는 경로분석을 두 방향에서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즉 경제적 박탈 변수와 다른 공변인의 인과 위치를 바꾸었을 때 통계적으로 유의한 효과(직접효과와 간접효과)를 측정하여, 그 상호 관계의 방향과 크기를 분석하였다. 계수들은 최적의 모형에서 추정된 통계적으로 유의한 효과를 나타낸 값들이다.

경제박탈과 교육박탈의 효과는 그 실질적 의미를 추론하기가 쉽지 않다. 변수의 시간적 위치를 보자면 교육이 다른 어떤 박탈 요인보다 앞선 상태로 파악될 수 있는데, 통계적 관계에서 보면 교육이 경제박탈에 미치는 효과보다 경제 박탈이 교육박탈에 미치는 효과가 더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런 차이는 교육과 경제박탈의 분산의 차이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양방향에서 추정된 회귀 계수는 분자는 동일하고 분모에 해당되는 공변인의 변량만이 차이가 난다. 따라서 경제박탈이 교육박탈에 미친 효과가 그 반대의 경우보다 큰 것은 경제박탈의 변량이 교육박탈의 변량보다 적은 데 따른다. 본 연구가 빈곤층을 대상으로 하였다는 점에서 소득의 변량이 제한되었고 이에 비해 교육수준의 변량은 상대적으로 커서 계수의 차이가 나타난 것으로 이해된다.

경제박탈과 노동박탈의 상호효과는 양 방향 모두에서 매우 강하게 나타난다. 경제박탈은 노동박탈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건강과 사회관계의 박탈을 매개하여 노동박탈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총 효과는 0.22이다. 한편 노동박탈이 경제박탈에 미치는 총 효과는 이 보다 더 크다(0.36). 노동박탈은 직접적으로 경제박탈을 심화할 뿐만 아니라, 건강과 사회 관계박탈을 매개한 효과도 0.05로 추정된다.

경제박탈이 건강박탈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직접적인 효과가 0.14이고, 다른 박탈을 매개하여 건강박탈에 미치는 영향이 0.08로 총 효과는 0.22로 계산되었다. 반면 건강박탈이 경제박탈에 미치는 효과는 직접효과가 0.07이고, 교육, 노동, 관계, 자아의식 등을 매개하여 미친 효과가 0.07로 총 효과가 0.14이다.

〈표 3〉 박탈 요인의 상호 관계

	소득/소비결핍 → 다른 박탈			다른 박탈 → 소득/소비 결핍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교육	0.23	0.13	0.36	0.05	0.02	0.07
노동	0.19	0.03	0.22	0.31	0.05	0.36
건강	0.14	0.08	0.22	0.07	0.07	0.14
이웃	-0.08	0.01	-0.07	-0.09	0	-0.09
관계	0.06	0.06	0.12	0.11	0.13	0.24
자아	0.16	0.04	0.20	0.18	0.05	0.23
가족	0	0.04	0.04	0	0.03	0.03
복지	0	0.02	0.02	0	0.01	0.01

경제박탈과 건강박탈의 상호효과는 경제박탈이 건강박탈에 미치는 영향이 그 반대의 방향보다 더 크게 추정된다.

경제박탈과 가족소외의 상호효과는 매우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접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으며, 이웃, 사회관계와 자아의식 등을 매개한 관계가 부분적으로 확인된다. 이런 결과는 단순 교차분석에서 발견되는 빈곤과 가족 긴장의 상관이 다른 박탈 상황들의 대리적 지표에 불과할 수 있음을 가리킬 수 있다. 혹은 본 분석에서 측정된 가족관계가 단순히 가구유형이 아니라 그 관계의 질을 다룬 결과이므로 기존 연구와 차이가 났을 수도 있다.

경제 박탈과 근린환경/이웃 박탈 사이의 관계는 엄밀하게 서로를 강화하는 효과는 아닌 것으로 해석된다. 오히려 경제박탈은 이웃 박탈을 완화하고, 이웃 박탈은 경제 박탈 정도를 완화하는 효과가 나타난다. 이것은 빈곤층이 밀집된 지역에서 이웃에 통합될수록, 빈곤탈출이 어려운 것을 의미하는가? 경제, 교육박탈과 이웃관계를 보면, 지역 통합이 경제 박탈이나

교육박탈을 더 심화하는 것으로 보여 진다. 그러나 사회관계, 자아 소외와 이웃관계의 상호 효과는 서로 박탈을 심화하는 관계가 확인된다. 이웃과의 연대는 빈곤층에게 도움과 정서적 지원 기능을 수행하지만 이런 연대가 빈곤에서 벗어나기 힘들게 하는 결과도 공존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박탈 사이의 상호 효과를 살펴보면, 둘 사이 직접적인 효과는 통계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

정리하면, 경제, 교육, 건강, 노동, 사회관계, 자아의식에서의 박탈 사이에는 상당히 강한 순환적 관계가 이루어져 박탈의 그물망이 만들어지고 있다. 박탈 요인들은 직접적으로 상호 영향을 미치는 동시에 다른 요인들을 매개하여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있다. 근린환경/이웃 효과는 빈곤문화의 부정적 의미와 연대의 긍정적 의미가 공존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가족과 복지가 경제 결핍과 갖는 직접 혹은 간접적인 관계는 미약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은 박탈 요인들의 강한 상호 관계에서 직조된 박탈의 그물망은 빈곤에서 벗어나기가 얼마나 힘든가를 감지하게 한다. 소득/소비의 결핍이 교육, 노동, 사회관계의 결핍과 자아 박탈을 조장하고, 역으로 이들 기회 요인들의 박탈이 소득/소비의 결핍을 촉발하면서 박탈의 그물망이 구조화되고 있다. 빈곤이 재생산되기 쉬운 것은 바로 그물망처럼 얽혀진 박탈의 중층성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이다. 한편 서로가 밀접하게 구속하는 힘을 가지고 그 관계가 어느 방향에서도 작동하는 것은 이 망이 삶의 기회를 고양하는 방향으로도 전환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생활세계가 계층화되었다는 것은 어느 한 부분에서의 돌과 자체가 매우 힘든 것을 가리킨다. 오히려 생활세계의 계층화는 박탈의 망 속에 간혀 있는 사람과 기회의 망 속에 살아가는 사람의 생활환경이 총체적으로 분리되어 있음을 시사한다.

박탈요인들이 상호 중첩된 관계에서 또한 흥미로운 것은 가족과 복지의 효과가 약하다는 것이다. 이는 비록 빈곤 상황에서 자녀나 부모 역할이 방기되는 위험이 상대적으로 클 수 있지만 가족성원간의 연대와 지지는 다른 박탈 조건에 비하면 건강하게 유지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복지가 제반 박탈상황의 변화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은 빈곤정책의 효과를 의심하게 한다. 박탈 망 안에서 유독 음의 값을 보이는 효과가 근린/이웃 관계에서 나타난다. 이웃과의 통합이 한편으로 연대를 제공하지만 빈곤 탈출에는 오히려 음의 관계를 가진다는 것은 빈곤 지역의 분리와 빈곤문화의 형성 가능성을 가리킬 수 있다.

2. 빈곤 의식의 다중성

빈곤층의 생활에서는 한편으로 빈곤을 탈출하려는 행동과 의지가 목격된다. 복합적인 박탈상황에 좌절하지 않고 환경을 개선하려고 적극적인 태도로 살아가는 삶이 보인다(김남줄, 2006). 다른 한편에서는 외부의 시선에 우려의 문화로 포착 되듯이 거짓과 불신의 행위들이 관찰된다(손태홍, 2006). 기구한 삶을 운명으로 받아들이는 착한 사람들도 발견된다. 도와주어야 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이렇게 구분되기도 하지만, 과거 생애 이력을 보면 이 경계는 다소 작위적이다(부록표 참조). 노동능력의 상실과 아무런 희망도 없다는 태도는 만성화된 박탈 과정의 최후 종착지에서의 심리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들게 한다. 여기서는 인터뷰 참여자들이 구술한 가난의 계기와 가난탈출에 대한 인식에 부착되어 있는 의미들을 분석하고자 한다. 해석에 준거가 되었던 사례들은 가명으로 제시되었다.

1) 가난의 계기

사람들은 왜 가난하게 되는가라는 질문에 대하여 인터뷰 참여자 대부분은 이중적인 평가를 내렸다. 개인의 책임을 강조하면서도 개인의 노력만으로 가난에서 벗어나기는 힘들다고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 말한다. 개인 요인으로서 지적되는 것은 ‘노력’이다(박연상, 박재남, 김보선). ‘성실’하고, ‘게으르지 않고’, ‘절약’하고, ‘강한 정신력’과 ‘인내’를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다(이절제, 강지원). 또한 노력과 구분되면서 자주 언급된 요인이 개인의 ‘능력’이다(박열순, 박희망, 박연상), ‘머리가 있어야 되며,’(김초연) ‘교육’이 중요한 것도 교육을 받아야 능력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박연상, 김포부, 김정화, 김복녀, 이안, 박하늘, 박보선, 김투석). 노력과 능력/교육을 구분하는 것은 능력이 개인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에 연유한다. 인터뷰 참여자 중 많은 사례가 배우지 못하여 힘들고 값싼 육체노동 밖에 할 수 없다고 전하는데, 능력이 없는 것은 배우지 못해서이며, 배우지 못한 것은 부잣집에 태어나지 않아서라고 설명한다. 이 밖에 가난하지 않기 위해서는 ‘안정된 직장이나 기술’(이절제, 김화목, 박하늘)과 ‘건강’(이화목) 요인을 지적하였다.

개인의 노력만으로 빈곤에서 벗어나기 힘들다고 생각하는 이유들도 몇 가지로 나누어 살펴 볼 수 있다. 우선 남성보다 여성에서 자주 언급되는 이유로서 ‘가족

〈표 4〉 가난과 부의 원인에 대한 의미 분류

개 인	노 력	개으름, 마음, 정신력, 성실, 절약, 저축, 인내
	능 력	교육, 건강, 기능, 기술, 직장
관계와 구조	결 혼	배우자 무능, 외도, 사별
	대물림	부모뒤틀림, 타고남, 출발이 다름
	빈익빈부익부	빈부격차
구조	부정의	속임, 남에게 피해, 부도덕
	경제구조의 변화	농촌, IMF, 영세 제조, 자영업 사양화
	팔자, 운	복, 시기

(배우자)’의 문제이다. 결혼을 잘 못 해서 온갖 고생을 다 하였다고 설명하는 예가 여기에 속한다(김인연, 강지원, 김복녀, 이안, 김화목, 이편안, 이하늘, 이화목, 강해진, 이복녀).

가난에서 벗어나는 것이 개인의 노력만으로 힘들다는 인식은 불평등의 ‘구조’ 요인에 대한 의식이다. 이러한 시각에서 사람들은 출발부터가 다르며 불평등이 심하다고 인식한다. 가난은 “해도 안 되기 때문이며, 부자는 개인의 노력이나 능력도 중요하지만, 환경이 지원해 주니까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중요한 환경으로서 ‘부모의 뒷받침’을 두드러지게 강조한다(김투석, 박연상, 김명안, 이명정). 가난과 부는 ‘타고난 것’이며, ‘부모의 뒷받침’ 속에서 좋은 교육을 받는다고 인식한다. 또한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해지고 있다고 지적한다(이관숙).

불평등이 가난의 큰 이유라고 생각하면서 자주 언급한 내용이 ‘부정의’이다. 부자는 정당한 방법으로 부를 획득한 것이 아니라 남을 속이거나 세금을 내지 않는 다든지, 부도덕한 방법으로 부자가 되었다고 지적한다(이절제, 박대자, 김초연, 이정, 박쾌남, 박정의, 김보선, 김정화). 불평등과 부정을 ‘팔자’로서 받아들이는 사례도 보인다(한강직, 김초연, 박보선).

이 밖에 세상의 변화가 자신의 삶을 좌우하였다고 인식하기도 한다. 버는 소득은 적는데 물가는 너무 비싸며, IMF 때문에 회사에서 그만두게 되고, 중국 의류가 들어오면서 영세 봉제업이 망하게 되고(김운복, 이관숙, 박희망), 갈수록 힘들어지고 있는 농촌 현실을 안타까워한다(한강직).

이렇게 조사에서 만난 사람들은 한편으로 개인의 노력과 책임을 강조하고 자신이 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었던 기회도 있었는데 자신의 과오로 그 기회를 놓쳤

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동시에 열심히 일해도 안 되며 그 이유가 대물림과 불평등에 따른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런 인식은 불평등의 동화와 그 긴장을 드러낸다. 한편으로, 노력과 능력의 강조는 중심문화의 가치를 모사한다. 개인의 노력과 성실성을 강조하는 것은 중심에 동화하려는 의지를 투사한다. 그러나 동시에 생애 경험은 동화의 허구를 인식하게 한다. 그래서 능력을 순전히 개인적 요인으로 파악하지 않는다. 능력이 부족한 것은 배우지 못해서이며, 이는 부잣집에 태어나지 못하였기 때문이라고 해석한다. 생애 경험에서 배움은 누구에게나 주어진 기회가 아니었기 때문에 배움의 상실을 불평등의 결과로 파악하고 있는 것이다. 개인의 노력만으로 가난에서 벗어나기 힘들고 부모의 뒷받침, 배우자의 무책임, 부도덕, 타고난 불운으로 가난하다고 인식하는 것은 불평등이 부당하다는 판단을 내포한다.

2) 가난 탈출에 대한 전망

중심문화에 동화하려는 기획과 그 긴장이 빈곤에 대한 대응 행위에서도 읽혀진다. 어떤 사람들은 힘든 삶에서 벗어나려는 의지가 강하게 보인다(박연상, 이관숙, 강지원). 열심히 일하고 소득이 적지만 저축을 하고 있고 자녀 교육에 애쓰고 있다. 또한 가족관계가 좋다고 스스로 평가하고 있다(김화목). 사회관계를 돈독하게 유지하는 것도 특징적이다. 관계에서 유용한 도움을 받기도 하지만 관계를 적극적으로 만들기도 한다(박연상). 가난에서 벗어나기가 매우 힘들다고 생각하고 가난에 따른 박탈감을 크게 인지하면서도 자기 통제력이 강하다. 그 결과 경제생활은 조금씩 좋아지기도 한다. 오랫동안 괴롭혀 왔던 빚을 최근에 청산하게 되었고(김화목), 사고, 가족건강, 파산 등 여러 악재가 닳았던 시기에서 서서히 벗어나면서 자신감도 회복하고 있다(강지원, 이관숙, 박보선). 앞으로 빈곤에서 벗어날 것이라고 생각하며 조그만 자기 사업을 하는 것이 꿈이고 좀 더 좋은 환경에서 살기를 희망한다(김화목, 박보선, 박대자).

“제가 알 벌면 안 되거든요. 아침에 일하고 있지만 낮에 장사를 하던가 생각 중이예요. 아직까지 몸이 건강하니까. 남들보다 진짜 한 일 더 뛰어야 되요. 다른 집에는 남편이 벌여준다고 쓰시는 분이 있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도 두 세푼 더 벌어가지고 이 환경에서 탈출하고 싶어요. 남들같이 아파트 가지고

스물 몇 평이나 그런데서 살고 싶지. 우리 애들도 바라고 있고. 한 4년? 잡고 있거든요.”(강지원)

그런데 빈곤 탈출의지가 빈곤에서 벗어나기 힘든 생활조건에서 연출되는 것은 아이러니이다. 이는 불평등 경험에서 분리되어 중심에 동화하려는 기획이 얼마나 큰 긴장을 포함하는 것인가를 암시한다. 실제 많은 사례에서 빈곤 탈출에 회의적인 태도가 짙다. 노력해도 생활이 변하기 힘들다고 생각한다. 노동을 지속할 수 있는 여건도 안 되고 의지도 상실하였고, 빈곤과 여러 박탈 상황들이 장기화되고 중첩되며, 정서적으로 힘이 되거나 경제적으로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관계도 주변에서 구하기 힘들다. 복지생활에 의존하여 살아가기도 하지만 하루하루 노동을 통해 생계를 이어가고 있기도 하다. 생활비의 주가 술로 소비되는 이유도 희망이 없는 현실을 잊기 위함이다(이절제). 앞으로도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므로 바라는 것도 없고 아무 생각 없이 하루 하루를 생활한다. 아무리 해도 가난에서 벗어나기가 힘든 삶에 억울함을 표현하기도 한다.

“... 몇 년 흐르다 보니까 아예 자신감이라는 거는 상실되는 그런 상황이죠. 한 마디로 내 자신에는 희망이 없고 집사람하고 둘이서 뭘 어떻게 이루어 보겠단지 이런 희망은 전혀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고 애들 저거를 잘 되고 건강하게 크면 그걸로 ... 내가 지금와서 뭘 해가지고 어떻게 되겠다 이런 마음도 없습니 다.”(박희망)

흔히 빈곤탈출을 막는 가장 심각한 장애로서 자립 의지의 약화가 지적된다. 공무원 인터뷰에 참여하였던 자활사업 담당자들이 사업 진행에 문제점으로 지적하는 것도 이것이다.⁴⁾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지금은 희망을 상실하였다는 평가도 자주 접하게 된다. 자립의식, 성공, 능력주의가 현 한국사회의 중심 가치라는 데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다. 개인의 능력과 자립의지가 강한 사람은 이런 중심문화에 동화하려는 욕구가 강한 사람이다. 그러나 중심문화에의 동화는 현재의 경험과는 분리된 ‘바람’으로 인식한다. 그러나 ‘바람’이 현실화되는

4) 부산과 경남 지역에서 공무원과 자활후견기관에 종사하는 실무자 6명과 그룹인터뷰를 실시하였다. 현장에서 느낀 점들을 이야기 하는 중 연구자는 빈곤의 원인에 대한 생각을 물어 보았는데 참여자 모두 빈곤층의 인성, 생활습관, 가족환경 등의 문제를 지적하였다. 공무원의 시각을 세밀하게 분석한 연구로 손태홍(2006)의 글을 참조할 수 있다.

것은 매우 어렵다. 동화의 노력을 하면서도 거의 대부분 실패하고 좌절하는 것은 불평등의 지배가 얼마나 강한가를 표시한다. 그리고 희망을 거두고 좌절하는 것은 동화의 허구를 체험하는 방식이다.

체념의 심리가 만성적 빈곤과 박탈의 중층성에 연결되는 것은 노년 빈곤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열쇠가 된다. 노년 빈곤은 생애 후반에 빈곤 위험이 증폭된 결과일 수도 있지만, 조사 사례에 속한 노년층에서는 빈곤은 장기적인 생애 경험이라고 복합적 박탈임을 확연하게 드러내 준다(김보선, 김초연, 김복녀, 이명정, 이복녀, 이정, 이하늘). 현 노년 세대의 특성을 반영할 수도 있겠지만, 출생부터 빈곤 하였던 경험이 두드러진다. 가난은 공식교육기회의 부재로 이어지고, 불안한 노동, 가족사로 이어진다. 노년에는 더 이상 노동을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육체가 피폐화되고, 생애를 쫓아다니던 빈곤이 자녀세대에게도 이전되어 비공식적 지원 기회도 부재하다(김복녀, 이하늘). 이렇게 생애 안에서 하나의 결핍이 다른 자원의 결핍으로 이어지고 박탈의 중층적 관계가 형성된다. “한평생 어렵게 힘들게 살아왔지만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였다는” 빈곤 경험에 대한 인식은 결국 삶에 대한 운명론적 해석과 겹치게 된다(김복녀, 이복녀).

동화의 허구에 대한 인식은 빈곤에 대한 남녀 인식의 차이에서도 살펴 볼 수 있다. 여성들이 빈곤의 원인으로서는 흔하게 지적하는 것이 ‘결혼’이었다. 이는 여성의 경제적 운명을 가부장의 능력과 보호의 영향에서 파악하는 중심 가치에 부합하는 해석방식이다. 그러나 가난은 이런 중심 가치에의 동화가 얼마나 불안한가를 깨닫게 한다. 가부장 문화에 동화하려 하였지만 그 허상을 체험하는 것이다. 동화의 실패는 부정적인 심리 징후를 일으키지만 가부장 관계를 저항하는 인식으로도 이어진다. 빈곤상황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가족생활에 더 노골적으로 불만을 토로하며 노동지위가 취약한 남성이 가족 소외를 크게 경험하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교육에 대한 태도에서도 동화기획-좌절-저항의 복잡한 심리과정을 읽을 수 있다. 교육은 중심에 동화하고 가난의 경험에서 분리될 수 있는 기회라고 기대된다. 사례에서도 탈출의지가 강한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학력수준이 높은 경향을 보인다(부록표 참조). 교육이 높을수록 중심의 논리에 접촉할 수 있는 기회가 많고 동화하려는 욕구도 크다. 그러나 생애초기부터 공식기관, 학원, 가족이 에워싸서 교육의 기회는 차등화되는 것을 체험하면서 자녀교육의 좌절도 크게 인지할 수밖에 없다(강해진, 김운복). 결국 자신의 처지를 고려한 부모는 자녀의 능력에 따라 배우고 싶은 데까지 지원하겠다고 말한다(박대자). 가난한 부모의 자녀 교육에 대

한 다소 ‘불성실한’ 태도는 계층화된 교육현실에 대한 좌절과 저항을 드러내는 것이다.

3) 빈곤문화와 중심문화

이렇게 중심문화에 동화하려 하지만 좌절하고 동시에 그것의 허구를 인식하는 것이 불평등 경험의 중요한 긴장이다. 불평등의 지배는 중심문화에 동화하고픈 욕구를 유인하지만 동시에 중심에서 분리를 재생산하여 동화의 가치가 허상임을 깨닫게 하기도 한다. 동화에의 욕구와 분리의 힘이 충돌하면서 부적응의 심리적 징후들이 나타나기 쉬운 것도 예상 가능하다. 고립되고, 생활의 활력이 없고,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기회, 능력, 의지 모두가 소진되어 괴로워하고, 술에 의존하는 생활이 된다(이절제). 이런 상황을 잊어버리기 위해 종교생활에 몰입하거나 움직이지 않으면 몸과 정신이 금방이라도 무너질 것 같아 계속 일을 찾기도 한다(이하늘). 자식 세대에서는 사는 것이 더 힘들어질 것 같다는 우려를 뿌리치지 못한다(김복녀, 김화목).

이런 행위 양식이 흔히 ‘빈곤문화’라고 정의된다. 특이한 것은 이런 부적응의 징후가 외부에서 더 잘 관찰된다. 생활현장에서 빈곤층을 직접 대면하는 공무원은 빈곤 문화의 존재를 매우 진지하게 논한다(손태홍, 2006). 가난한 사람은 인성에 결함이 있고 복지에서 탈출하려는 의지가 약하다고 평한다. 빈곤 문화가 개인의 문제행동과 이의 학습에서 재생산된다고 말한다. 소비를 절제하지 않고, 유흥을 추구하며 복지정책에 의존적이며, 알코올 중독 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워며 근로 의욕이 낮다고 말한다. 결국 복지정책의 확대가 복지병을 만들고 사람을 망친다고 우려한다. 그리고 이러한 판단이 개인의 사사로운 견해가 아니라 빈곤층을 접하는 사람이면 쉽게 공유할 수 있는 객관적인 관찰에 근거한다고 말한다.

빈곤문화론의 중요한 주장 중의 하나는 빈곤층은 중심 문화에 통합되지 않은 자기 문화를 스스로 만든다는 것이다(Leacock, 1971; Lewis, 1961). 요컨대 가난한 사람은 빈곤에서 벗어나기 힘든 인격적 결함을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거나 그가 속한 집단에서 학습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문제행동은 외부의 시선과 권력에 의해서 만들어진 점도 강조할 필요가 있다. 빈곤층의 절제되지 못한 소비, 순간의 욕구를 자제하지 못하는 나약함을 지적하지만, 이런 습성은 소비를 부추기는 시장에서 만들어진다. 대중매체를 타고 확산되는 소비 신화는, 순간의 소비에

서 지위를 획득한다는 착각에 빠지게 한다. 최근에 급작스럽게 확대된 도박 시장은 우리 사회의 실업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오락실이나 유흥업소에서 상대적으로 쉽게 번 돈은 다시 유흥 소비 시장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다. 경기활성화의 목적에서 장려한 신용카드도 소비욕구에 불을 질렀다. 이렇게 소비의 위협에 쉽게 빠지는 사람들은 생계가 불안한 사람들이다.

빈곤층이 자립의지가 약한 것은 중심문화에 통합되지 못해서라고 설명하기도 하지만, 과연 중심문화가 개인의 자립의지와 성실함을 권장하는가도 질문하게 된다. 성공에 대한 강한 욕구는 능력만 있으면 부패나 부정의도 용인할 정도이다. 성공과 능력의 중요성은 어린 아이가 말을 이해하기 시작하는 시기부터 세뇌된다. 성공의 가치가 강할수록 그리고 그 기회가 제한될수록 왜곡된 욕구에 빠지기 쉽다. 이런 이유로 빈곤문화의 비도덕성이 중심문화와의 분리에서 비롯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것이다. 오히려 빈곤층의 경험은 중심 문화의 억압에 대한 저항을 함께 표출하고 있다. 탈물질적이고 정신적인 가치를 찾고 이타적인 관계를 살려고 하는 것, 고통에 초월하는 태도는 중심의 폭력에 대한 저항이다(박연상, 김복녀, 이하늘, 한강직).

VI. 맺음말

이 연구는 빈곤층이 불평등을 어떻게 경험하고 인식하는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빈곤층의 생활 세계는 복합적인 박탈 상황에 있다. 노동, 가족, 사회관계, 건강, 심리부문에 이르기까지 복합적인 결핍 상황이 중첩되어 빈곤에서 좀처럼 쉽게 빠져나오기 힘든 박탈의 그물망이 구성되고 있다. 박탈망의 구조화는 불평등에 의해 전면적으로 포섭되고 있는 생활세계를 증명한다.

빈곤층의 의식과 태도에서는 중심문화와의 동화와 분리의 긴장을 발견할 수 있었다. 한편으로 복합적인 박탈에서 벗어나려는 의지와 태도가 보인다. 동화의 기획은 자신의 경험을 중심의 문화에서 해석하도록 내적으로, 외적으로 강제된 것이다. 밖의 시선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이웃과 분리하려는 강박의식을 가진다. 동화의 기획은 또한 중심가치에 타협함으로써 보호를 보장받는 적응 전략으로 모색된다. 빈곤을 결혼을 잘못된 탓으로 설명하는 것은 남녀 분리의 지배구조에 타

협하는 여성의 전략적인 사고를 투사한다. 그러나 이런 동화는 실패로 끝나기 쉽다. 복합적 박탈 상황은 중심에 동화하는 것을 제약하는 존재 조건이기 때문이다. 실패가 고착화될 시점이 되면 대안의 적응 전략들이 모색된다. 한편으로 쉽게 와해될 수 있는 의형제와 같은 내부 유대를 이웃과 만들거나, 사회와 이웃과의 관계를 완전히 차단하기도 한다. 이와는 다르게 정신지향적 삶으로 가난의 경험을 재해석하기도 한다. 이렇게 빈곤의 경험에는 박탈과 타협, 동화와 단절, 억압과 저항들이 각축하고 있다.

한편으로 빈곤의 경험은 박탈이다. 이는 중심에서의 분리를 의미한다. 또한 중심은 박탈의 인식에서 분리될 것을 강제하고 개인도 이런 강제에 타협한다. 그러나 중심에 동화하려는 시도는 불평등이 재생산되는 결과로 끝나기 쉽다. 결국 불평등의 지배 속에서 동화의 기회이나 단절 모두 긴장을 가진다. 이렇게 빈곤경험의 다중성은 생활세계가 불평등에 지배되는 과정에서 겪는 다양한 긴장과 적응 방식들을 표상한다. 따라서 빈곤극복을 목적에 두거나 아니면 보다 자율적인 삶의 기회를 복원하려는 관심들은 생활세계의 계층화에 대한 비판적인 성찰에서 실천의 방향들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강신욱·김안나·박능후·김은희·유진영. 2005. 『사회적 배제의 지표 개발 및 적용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강영호·이상일·이무송·조민우. 2004. “사회경제적 사망률 불평등: 한국노동패널 조사의 추적 결과.” 『보건행정학회지』 14(4): 1~20.
- 구인희. 2002. “빈곤층의 사회경제적 특성과 빈곤 이행: 경제위기 이후의 시기를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48: 82~112.
- 길리건(Carol Gilligan). 1982. 『다른 목소리로』. 허란주 역. 동녘.
- 김남줄. 2006. “빈곤에 대한 주관적 인식과 탈출 전망.” 박경숙 편. 『삶의 기회』. 동아대 출판부. pp.43~84.
- 노대명·이태진·강병구·강석훈·홍경준·이인재·송민아·김선미. 2003. 『2002년 저소득층 자활사업 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루이스(Oscar Lewis). 1961. 『산체스네 아이들』. 박현수 역. 지식공작소.

- 박병현·최선미. 2001. “사회적 배제와 하층계급의 개념 고찰과 이들 개념들의 한국빈곤정책에의 함의.” 『한국사회복지학』 45: 185~219.
- 박병철. 2006. “빈곤층의 정치태도와 투표행태.” 박경숙 편. 『삶의 기회』. 동아대 출판부. pp.331~366.
- 방하남·남춘호·신광영·장지연·박경숙·이성균. 2004. 『현대 한국사회의 불평등』. 한울.
- 석현호 편. 1997. 『한국사회의 불평등과 공정성』. 나남.
- 손태홍. 2006. “공무원 간담회에서 나타난 빈곤의 원인과 빈곤정책의 함의.” 박경숙 편. 『삶의 기회』. 동아대 출판부. pp.85~120.
- 송호근. 2002. “빈곤노동계층의 노동시장구조와 정책.” 『한국사회학』 36(1): 23~51.
- 신광영. 1991. “계급, 노동시장과 불평등.” 서울대학교 사회학연구회 편. 『사회계층: 이론과 실제』. 다산출판사. pp.20~39.
- 신명호. 2006. “교육과 빈곤: 교육을 통한 빈곤탈출이 어려워지는 이유.” 한국도시연구회 편. 『한국사회의 신빈곤』. 한울. pp.208~241.
- 심창학. 2001. “사회적 배제 개념의 의미와 정책적 함의: 비교 관점에서의 프랑스를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44: 178~208.
- 이가옥 외. 2000. 『노년기 삶의 질: 지표개발과 평가』. 세계 노인의 날 기념 6회 학술세미나. 보건복지부, 성공회대학교.
- 이상문. 2005. “정신, 신체적 건강.” 박경숙·김남줄·김수영·김진수·나금실·박병철·손태홍·이상문·최희경. 2005. 『빈곤의 순환고리들: 부산, 울산, 경남지역 저소득층의 생활과 의식 I』. 동아대 출판부. pp.58~92.
- 이주호. 1992. “한국의 이중노동시장에 관한 실증분석.” 『노동경제논집』 15: 37~75.
- 이현승. 2000. “삶의 영역별 지수화 및 평가.” 『노년기 삶의 질: 지표개발과 평가』 세계 노인의 날 기념 6회 학술세미나. 보건복지부, 성공회대학교.
- 이효수. 1988. “노동시장의 한 미 일 비교 분석: 고용관계를 중심으로.” 『노동경제논집』 11: 29~55.
- 장미혜. 2002. “사회계급의 문화적 재생산: 대학 간 위계서열에 따른 부모의 계급구성의 차이.” 『한국사회학』 36(4): 223~251.
- 장세훈. 2005. “현단계 도시빈곤의 지속과 변화; ‘신빈곤’ 현상에 대한 탐색.” 『경제와 사회』 66: 95~125.
- 정경희 외. 2002. 『한국의 노인복지지표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정이환·전병유. 2001. “1990년대 한국 임금구조의 변화 - 내부노동시장은 약화되고 있는가.” 『경제와 사회』 52: 156~183.
- 조명래. 2006. “신자유주의적 산업구조조정과 신빈곤.” 한국사회도시연구소 편. 『한국사회의 신빈곤』. 한울아카데미. pp.49~87.

- 한국사회도시연구소 편. 2006. 『한국사회의 신빈곤』. 한울아카데미.
- 홍경준. 2004. “빈곤에 대한 동태적 분석: 빈곤주기를 중심으로.” 제 5회 한국노동패널 학술대회 발표 논문. 한국노동연구원.
- 홍두승·구해근. 1993. 『사회계층, 계급론』. 다산출판사.
- 홍성민. 2000. 『문화와 아비투스: 부르디외와 유럽정치사상』. 나남.

- Doeringer, Peter and Michael Piore. 1971. *Internal Labor Market and Manpower Analysis*. D.C. Health & Company.
- Iceland, John. 2003. *Poverty in America*. Berkeley and London: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Katz, Michael(ed.). 1993. *The Underclass Debate: View from History*. New Jersey: Princeton University Press.
- Leacock, Eleanor(ed.). 1971. *The Culture of Poverty: A Critique*. New York: Simon and Schuster.
- Pierson, John. 2002. *Tackling Social Exclusion*.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 Sen, Amartya. 1981. *Poverty and Famines: An Essay on Entitlement and Deprivation*. Oxford: Clarendon Press.
- Townsend, Peter. 1970. *The Concept of Poverty*. New York: American Elsevier Publishing Company.

박경숙은 현재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조교수로 재직 중이며, 인구, 노년, 불평등을 중심으로 연구하고 있다.

[2007. 5. 14 접수; 2008. 2. 15 게재확정]

〈부록표〉 심층인터뷰 참여자의 가난 탈출에의 기대

	희 망		체 념
박 열 순	여, 47세. 어릴 때 보육원에서 생활. 중학교. 남편 배에서 사고로 살인, 이후 마음을 잡지 못하다 간경화로 사망. 현재 자동차도 색. 아들 교육에 열심.	박 대 자	남, 40, 중중퇴. 부속상가, 고무, 카인테리어, 노가다, 택시업 하다 사고. 현재 취로사업. 소득보전으로 탈출희망. 누이지원. 유배우.
박 연 상	남, 45세, 방송통신고, 자동차 운전강사하다 11세 연상녀와 결혼함, 아내 빛으로 이혼하고 두 자녀를 혼자 돌봄. 현재 생활보조+택시업.	김 보 선	남, 61세. 무학. 이북출신. 이남하여 어머니와 조각일을 하다 모친 재가 뒤 혼자 공사현장을 돌아다님. 다시 어머니와 의붓형제들을 만나 돌봄. 공사현장에서 허리를 다쳐 일을 못하게 됨. 딸이 정신지체.
김 명 안	남, 41, 중학교. 공장-운전-피라미드 판매. 건강악화, 사기. 현재 학원운전수. 노동의지, 자녀교육 의지가 강함.	김 운 복	남, 41세. 고등. 소년원 경험. 노래방, 술집 등을 경영하다 교통사고, 사업실패, 모친 병환 등 악재가 겹침. 현재 막노동을 함.
박 쾌 남	남, 41세, 고등학교 졸업하고 군대가려는 참에 사고로 반신불수가 됨. 재활훈련을 하여 혼자 생활할 수 있게 되었고 결혼도 함. 현재 재택근무를 하고 있음.	김 초 연	남, 72세, 일본에서 소학교를 다님. 기계, 운송업을 하였지만 형편이 꺾이지 않음. 지금 부인과 튀김장사를 함.
김 화 목	여, 39세, 고등. 어머니의 생활력을 닮았다고 생각. 10년 간 조무사로 일하다가 결혼. 결혼초기부터 경제적 이유로 부부관계가 좋지 않음.	김 투 석	남, 51세. 초등. 배를 타다 부인을 만남. 오징어 가공업을 하다 당뇨가 악화되고, 아내가 가출하고 딸도 고등학교 다닐 때 집을 나감.
이 화 목	여, 64세, 고등, 27세 결혼 후 부품 회사, 신발공장 등을 다님. 남편은 정치활동에 참여. 동장을 10년. 남편 고혈압으로 사망. 아들 스스로 대학 나와 학원 꾸림.	김 복 녀	여, 66세. 무학. 남편 40세 위암으로 사망. 큰아들이 이혼하여 손녀를 대신 돌보고 있음. 평생 궁핍하게 삼.
박 회 망	여, 37세, 중학교. 남편과 함께 직접 봉제업을 꾸림. 96년 뽕소니 사고로 크게 다쳐 전신 마비됨. 남편도 근육마비병에 걸려 있음. 아들은 남의 집에서 키우고 있음.	이 안	여, 50. 초등. 가정부, 옷공장, 포장마차, 식당일, 때밀이 등 하다 24세에 결혼하였으나 7년 전 남편무능, 외도로 이혼함. 자식과도 연락두절 됨. 현재 취로사업 중.

〈부록표〉 계속

박 보 선	남, 46세. 고등. 선원 생활 하다 32세에 결혼. 큰아들 뇌종양으로 회사를 나왔고 임시직으로 근무하고 아내는 식당일을 함.	박 하 늘	여, 46세. 초등. 가정부, 유흥업에 일하다 손님과 결혼. 결혼 5년 만에 이혼하고 아들과 삼. 건강이 몹시 나쁨. 종교생활.
이 정	남, 61세. 중졸. 신문배달, 외양선. 막노동. 여러 지역 다니면서 일하다가 10년 전부터 조그만 슈퍼를 갖게 됨. 그러나 10년 동안 풍으로 고생함. 부인은 80년대 난소암으로 사망. 미혼딸과 모친과 함께 삼.	박 정 의	남, 67세. 고등. 이동영화, 의상실, 식당 일 경험. 식당일 하다 사고가 나 이후 크게 다침. 이혼과 재혼. 큰 아들의 방황. 20여년 수급생활.
김 포 부	남, 62세. 고등. 정치열망이 큼. 30여 년간 정치 활동에 참여, 현재 생보자이면서 교통자원봉사를 함. 이혼 뒤 자녀들과 연락이 끊김.	이 절 제	남. 54세. 나쁜 일이 계속 이어짐. 저학력(초등)-소년원-낙상-이혼-노숙자 생활 등. 사회 관계 취약하고 술에 의존하여 삼.
이 관 숙	여, 40세, 대졸. 기획실근무하다 결혼. 첫 아이 뇌종양과 남편 사업 부도로 수급자가 됨.	이 명 정	남, 69세. 초등. 채소장사, 가마일, 머슴살이. 날품팔이. 때밀이 등의 생애. 22세에 결혼하였으나 사별. 가난하여 딸들을 어릴 때 남의 집에 가정부로 보냄. 주변에 의지할 관계가 없음.
강 해 진	여, 44세. 고교 나와 섬유회사 다니다 결혼. 공무원 남편이 갑작스럽게 암으로 사망한 뒤 생활이 아득해짐. 현 마산공단에서 일하고 아들 교육에 신경씀.	김 인 연	남. 55세. 공장, 고물장사, 선원생활. 아내 도박으로 재산 날리고 두 번 이혼. 배에서 큰 사고를 당함. 큰 아이는 모친이 키우고 8살, 10살 아이는 직접 키움.
김 정 화	남, 36세. 공고를 나와 신앙생활 때문에 정규 일을 하지 않았으며 이혼함. 현재 자동차 세차하면서 딸을 키우고 있음.	이 편 안	여, 58세. 중학교. 38세 이혼 뒤 자식과 연락 끊김. 장사에 실패했고 지병으로 힘든 일을 못함. 현재 자활근로. 연락 끊긴 아들 생각에 우울해 함.
한 강 직	남, 56세. 초등, 농사, 어장 일을 하였고 현재는 일용직.	이 하 늘	여, 59. 야학으로 글자 깨침. 남편이 불치병을 비판하여 자살. 큰아들 정신병으로 입원. 봉제업 20년 하다 IMF 때 그만 둠. 현재 공공근로. 종교생활.
강 지 원	여, 35세, 고등. 남편 외도, 폭력, 실직으로 이혼하고 1남1녀를 키우고 있음. 배달, पार्ट타임 등 여러 일을 하고 있음. 동네사람들과 거리를 둠.	이 복 녀	여, 69. 초등. 평생 힘들게 삼. 자식들 교육 못 시킨게 한. 남편 당뇨로 61세 사망. 관절이 급격히 나빠져 일을 못할 지경임. 나라에서 보조를 받는 게 소원.

Life and Consciousness of the Poor

Domination of Inequality and Its Resistance in Every Day Life

Park, Keong-Suk

Dept. of Sociology,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examines the living condition and consciousness of the poor. For this purpose, three years' consecutive surveys and in-depth interviews from 2004 to 2006 were conducted for the low income families residing in Busan, Ulsan, and Kyeongnam of South Korea.

Life of the poor is characterized by multiple deprivations. Various deficiencies measured by economic, social, individual aspects are mutually tightening and structuring a 'web of deprivation' which is difficult to exit from once fallen into. The structuration of deprivation web reflects the every day life enclaved by inequality. Economic deficiency, lack of individual and social capitals, and maladjustment of self are the way in which inequality is experienced over the life course.

In the consciousness and attitude of the poor, we witness tensions of assimilation into and separation from inequality. The aspiration for breaking out of poverty competes with the feeling of resistance against the coerced assimilation. Symptoms of deprivations and compromises, assimilation and separation are floating in the experience of the poor. Reflexive practices are required to tackle the domination of every day life by inequality and the resultant multiple deprivation of the poverty.

Key Words : inequality, poverty, every daily life, multiple deprivations